

클라이언트 데이터 이질성에 강인한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반 연합학습 알고리즘

장원준, 박현서, 이시현
한국과학기술원

wonjun_jang@kaist.ac.kr, phseo2000@kaist.ac.kr, sihyeon@kaist.ac.kr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Based Federated Learning Algorithm Robust to Client Data Heterogeneity

Won-Jun Jang, Hyeon-Seo Park, Si-Hyeon Lee
KAIST

요약

본 논문은 연합학습 상황에서 서버의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이용한 앙상블 증류를 할 때에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별 데이터 분포가 크게 상이할 때에도 강인하게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하는 앙상블 증류 알고리즘이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모두 합친 데이터 분포에서 최적의 성능을 가짐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CIFAR-10 데이터셋에 대해 성능의 우월성을 검증한다.

I. 서론

연합학습 분야는 클라이언트들이 각각 갖고 있는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서버에게 보내면 서버가 그를 모아서 서버 모델을 학습하고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학습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이다 [1]. 연합학습 과정에서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모두 받아오지 않으므로 프라이버시와 통신 효율 면에서 장점이 있다. Google 이 첫 연합학습 알고리즘인 FedAVG 알고리즘을 제시한 이후로, 연합학습 과정에서 통신 효율 [2], 프라이버시 [3], [4], 그리고 클라이언트 데이터 분포의 상이성 극복 [5]-[7]과 같은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버는 클라이언트 대비 데이터 저장 및 계산 용량이 더 크므로 서버에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한 앙상블 증류를 통해 클라이언트 데이터 분포의 상이를 극복하는 알고리즘들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이용하여 더 좋은 성능의 분류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앙상블 증류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II. 본론

분류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연합학습 상황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서버와 C 명의 클라이언트가 있고, 클라이언트는 라벨이 있는 작은 데이터셋, 서버는 라벨이 없는 큰 데이터셋이 있다고 가정한다. 서버는 저장 용량이 클라이언트보다 클 것이므로 큰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데이터 라벨링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므로 서버에 라벨이 없는 큰 데이터셋이 있다는 가정은 충분히 현실적이다.

앙상블 증류 과정은 다음과 같다. t 라운드에 자신의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클라이언트 c 의 모델이 f_c^t 라고 하자. 서버는 자신의 데이터셋 U 안의 데이터 x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사 라벨을 만든다.

$$\tilde{y}(x) = \sum_{c=1}^C w_c(x) f_c^t(x)$$

이 때 $w_c(x)$ 는 데이터 x 에 대해 클라이언트 c 의 출력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결정하는 가중치이고, $\sum_{c=1}^C w_c(x) = 1$ 이다.

이렇게 각 라벨이 없는 데이터 x 에 대해 의사 라벨 $\tilde{y}(x)$ 를 계산하고, 의사 라벨이 있는 데이터셋 $\tilde{U} = \{(x_i, \tilde{y}_i)\}_{i=1}^N$ 을 구성한 후에, 서버는 자신의 모델 f_c^t 의 파라미터를 클라이언트 파라미터의 평균으로 초기화한 후에 \tilde{U} 에 대해 추가로 학습한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 각각의 데이터 분포가 크게 상이하더라도 서버 데이터셋으로의 추가 학습을 통해 더 좋은 성능의 서버 모델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FedDF [6]를 제시한 논문에서는 이러한 앙상블 증류를 제시하고, 몇 가지 가정 하에서 서버 모델 성능의 상한을 제시했다. FedDF 알고리즘은 모든 $c = 1, \dots, C$ 와 모든 서버 데이터 x 에 대해서, $w_{cDF}(x) = \frac{1}{C}$ 로 클라이언트 별 동일한 균등 가중치를 이용하여 의사 라벨을 만든다.

Fed-ET 알고리즘은 서버 데이터 x 에 대해 보다 잘 아는 클라이언트 모델의 출력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가중치를 조정한다 [7]. $f_c^t(x)$ 가 데이터 x 에 대한 클라이언트 c 의 출력 logit 이라고 하자. 이 때 클라이언트 c 의 가중치 w_{cET} 는 다음과 같다.

$$w_{c_{ET}}(x) = \frac{\text{Var}(f_c^t(x))}{\sum_{c=1}^C \text{Var}(f_c^t(x))}$$

이는 logit 이 크게 차이나는 클라이언트 모델이 데이터에 대해 더 확신하는 모델이고, 그만큼 해당 데이터에 대해 더 잘 아는 모델일 것이라는 가설에서 기인한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연합학습 알고리즘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 서버는 서버 데이터셋 U 를 이용하여 생성 모델 G 를 훈련한 후 클라이언트들에게 배포한다.
2. 클라이언트 c 는 서버가 제공한 G 를 이용하여 가짜 데이터셋을 만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생성적 적대 신경망[8]의 판별자 D_c 를 학습한다. 특히, 진짜 데이터에 대해서는 1, 가짜 데이터에 대해서는 0 을 출력하도록 학습한다. 그 후 D_c 를 서버에 보낸다.
3.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앙상블 증류를 이용하여 연합학습을 진행한다.

앙상블 증류 단계에서 서버는 클라이언트 c 의 판별자 D_c 와 모델 f_c^t 를 이용하여 의사 라벨을 만든다. 서버 데이터 x 에 대해, "odd" Φ_c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Phi_c(x) := \frac{D_c(x)}{1 - D_c(x)}$$

본 논문이 제시하는 가중치 w_c^* 는 다음과 같다.

$$w_c^*(x) = \frac{\Phi_c(x)}{\sum_{c=1}^C \Phi_c(x)}$$

또한, 다음 정리가 알려져있다.

정리 1 [8]. 클라이언트 c 의 데이터 분포가 p_c , 생성 모델 G 가 만드는 데이터 분포가 p_g 라고 하면, 최적으로 학습된 D_c 는 다음과 같다.

$$D_c(x) = \frac{p_c(x)}{p_c(x) + p_g(x)}$$

이를 통해 판별자 D_c 를 통해 만드는 odd 가 $\Phi_c(x) = \frac{p_c(x)}{p_g(x)}$ 를 근사함을 알 수 있고, 데이터 x 에 대해 $\Phi_c(x)$ 는 해당 데이터가 c 의 데이터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 $p_c(x)$ 에 비례한다. 또한 $p_c(x)$ 가 다른 클라이언트에 비해 클수록 c 의 모델 f_c^t 의 출력의 성능이 다른 클라이언트에 비해 좋을 것이다(f_c^t 는 $p_c(x)$ 에서 loss 를 최소화하도록 학습하므로). 따라서, 제시하는 가중치 w_c 는 앙상블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를 더 잘 학습했을 클라이언트 모델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위 가중치를 이용하여 다음 정리를 증명할 수 있다.

정리 2. Loss 가 convex 하고, D 는 모든 클라이언트 데이터 분포의 평균 분포이고, $L_D(f)$ 는 모델 f 의 D 에서의 평균 loss, f_c 는 클라이언트 c 의 데이터 분포에서 평균 loss 가 가장 작은 모델이라 하자. 이 때 모든 모델 f 에 대해,

$$L_D\left(\sum_c w_c^* f_c\right) \leq L_D(f).$$

이는 제시하는 앙상블로 생성한 의사 라벨이 어떠한 단일 모델로 생성한 의사 라벨의 성능보다 좋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CIFAR-10 에서 $C=20$ 이고 클라이언트 데이터 분포가 Dirichlet(0.1) 분포를 따를 때(충분히 클라이언트

데이터 분포가 불균등할 때), FedAVG, 그리고 균등 가중치 $w_{c_{DF}}$, 분산 기반 가중치 $w_{c_{ET}}$,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제시하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반 가중치 w_c^* 들을 이용한 앙상블로 50 라운드 학습한 모델의 최종성능을 나타낸 표이다. 표의 값은 3 회 서로 다른 랜덤 시드에 대해 반복하여 평균을 취한 값이다.

알고리즘	최종 성능(정확도, %)
FedAVG	47.95
$w_{c_{DF}}$ 기반 앙상블 증류	72.32
$w_{c_{ET}}$ 기반 앙상블 증류	71.60
w_c^* 기반 앙상블 증류	80.96

이는 본 논문이 제시하는 가중치 기반 앙상블의 성능이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잘 동작함을 보인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이용하여 최적의 앙상블을 수행할 수 있는 가중치 모델링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높은 성능의 이미지 분류 모델을 학습하였다.

ACKNOWLEDGMENT

본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22R1A2C2092151).

참고 문헌

- [1] McMahan, Brendan, et al. "Communication-efficient learning of deep networks from decentralized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atistics. PMLR, 2017.
- [2] Bernstein, Jeremy, et al. "signSGD: Compressed optimisation for non-convex problem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PMLR, 2018.
- [3] Geyer, Robin C., Tassilo Klein, and Moin Nabi. "Differentially private federated learning: A client level perspective." arXiv preprint arXiv:1712.07557 (2017).
- [4] Truex, Stacey, et al. "LDP-Fed: Federated learning with local differential privacy." Proceedings of the Third ACM International Workshop on Edge Systems, Analytics and Networking. 2020.
- [5] Li, Tian, et al. "Federated optimization in heterogeneous networks." Proceedings of Machine learning and systems 2 (2020): 429-450.
- [6] Lin, Tao, et al. "Ensemble distillation for robust model fusion in federated learning."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3 (2020): 2351-2363.
- [7] Cho, Yae Jee, et al. "Heterogeneous ensemble knowledge transfer for training large models in federated learning." arXiv preprint arXiv:2204.12703 (2022).
- [8] Goodfellow, Ian, et 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Communications of the ACM 63.11 (2020): 139-144.